

열아홉번째 이야기

[2019 양재BEE 오비히로 일본 아웃리치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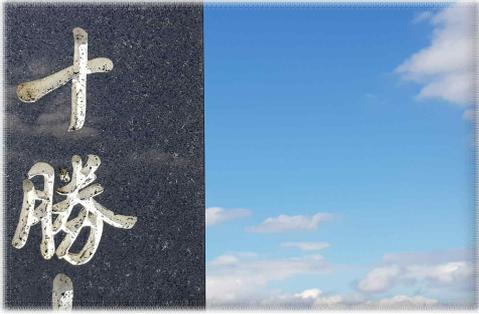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본 선교, 말이 됩니다.”



양재BEE 일본 아웃리치의 회계를 담당하신 집사님이 아웃리치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소감으로 나눠주신 말씀이다. 지소미아 (GSOMIA) 폐기결정으로 한일관계가 들쭉이던 즈음, 텅 빈 아사히가와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던 14명이 3박 4일 동안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고백이기도 하다.

양재BEE의 정대서 장로님이 3년 여 전부터 기도해 온 일본 아웃리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올해 초부터이다. 예정되었던 팀원들 중 핵심 멤버였던 집사님 부부가 심장수술과 척추골절을 겪게 되면서 일본선교에 대한 영적공격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한 각종 문서와 책을 함께 읽고, 신민호 장로님과 김영숙 선교사님을 통해 일본 선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일본을 덮고 있는 이상승배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띠 금식 기도”를 한 달 동안 이어갔다.



우리가 방문했던 오비히로 그리스도 복음교회, 메무로교회, 도카치 그리스도 리바이벌교회가 위치한 곳은 홋카이도 오비히로의 ‘도카치’라는 지역이다. 도카치는 한자로 ‘十勝’ 곧 ‘십자가의 승리’를 연상하게 하는 뜻깊은 곳이다.

도카치 그리스도 리바이벌교회의 닛다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와 아스파라거스 농장을 방문했다. 목사님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휴게실 한편에는 전도지와 성경이 놓여있었다.

도카치 지역의 선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닛다 목사님은 중죄수들을 수감했던 ‘도카치 감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메이지 시대의 개척교회의 선구자였던 ‘사카모토 료마’의 조카인 ‘사카모토 나오히로’ 목사는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다녔던 아사히가와와 ‘로쿠조교회’에 머물면서 ‘도카치 감옥’에 와서 전도를 했다. 선교사들도 중점사역으로 도카치 감옥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1,200명의 죄수들 중 800명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출소해서 교회에 갔을 때, 예배당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 바로 ‘도카치’라고 목사님은 잔잔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도카치의 복음의 씨앗이 나문채 선교사님 부부의 일대일과 BEE 성경공부를 통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비히로 그리스도 복음교회’의 다케다 목사님은 일대일과 성경공부 이후 변화되어서 새벽예배를 시작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변화되고 있다. 도착 당일에 일대일 수료식이 있었는데, 충직한 교회의 일꾼 시오야마 형제와 요시에 사모님이 수료를 했다. 주미경 선교사님이 양육한 요시에 사모님은 한 때 조현병을 겪었고 현재도 불면증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수료를 했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는 수료 소감을 나누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둘째 날, 준비된 Blessing Night는 3개 교회의 목사님 부부와 성도들 그리고 초대받은 불신자들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 선물을 포장하고, 수화를 곁들인 일본어 찬양연습, 참석자들을 위한 뜨거운 중보기도와 찬양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평소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요리를 하지 않는 교회의 작은 부엌에서 음식냄새가 퍼져나갔고, 즉석으로 연주하는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부르며 음식준비를 했다. 김치전, 해물전, 김밥, 잡채, 한과와 오미자차 등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맞이했고, 함께 어울려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음식이 인기가 좋아서 넉넉히 준비했던 부침개가 거의 동이 날 지경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문채 선교사님의 진행과 함께 특송, 설교, 특별연주, 게임 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웃리치 팀이 수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꽃들도’를 찬양했고, 참석한 57명이 다 함께 ‘Amazing Grace’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불렀다. 남녀노소 연령대가 다양했고 게임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었는데, 처음 교회에 와서 어색했던 형제자매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갔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요시에 사모님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처음이었고 슬리퍼가 모자랐다.”고 말하면서, “한국 성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분발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메무로교회’를 방문했을 때 건강이 안 좋은 사모님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결혼생활’세미나를 인도하는 정대서 장로님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루에 한 시간씩 손을 잡고 산책하며 대화를 나눌 것을 권면했다. 일본 교회의 사모님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관습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기독교적인 정서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눌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 장로님의 권면과 합심기도 이후, 다음 날 사모님의 표정이 매우 밝아졌고 건강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도카치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 복음교회’에서 주일예배와 성찬식이 있었다. 20여 명 남짓한 성도들이 잘 정돈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기다렸고, 시오야마 형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나는 성찬의 포도주를 나눠 주는 봉사를 맡게 되었다. 성찬에 앞서 목사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여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일본에서는 창조와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케다 목사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심령의 깊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든 잔을 받아 드는 일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봉헌기도를 드리는 한 형제의 기도는 아웃리치 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먼 곳에서 일본까지 와 준 온누리 교회의 아웃리치 팀에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한국 성도들의 찬양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은 삼각형 모양처럼 서로 다른 국가와 언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기도내용이었다. 경직된 한일관계로 국가적으로는 긴장 가운데 있지만 한국과 일본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본 교회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다면, “작다”, “소박하다” 그리고 “연약하다”이다. 성도들 중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가식과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크고 강해 보이지만 일본 교회는 작고 연약하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고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본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느꼈다.

그리스도 복음교회의 2019년 표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때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진리가 일본 교회를 변화시킴으로 “십자가의 승리”(十勝)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는다.



[글쓴이 백소영 집사]

큐티와 성경통독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BEE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말씀을 알아 갈수록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를 맺어야 함을 느끼면서 겸손한 자세로 BEE와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가정사역 공동체 소망 5순에 소속되어 있으며, 남편 김진승과 두 아들 현우, 현민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글: 백소영,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19. 박혜숙 간사



10년간 터키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2017년 결혼을 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속 선교에 관계된 일을 섬기고 싶다고 기도하던 중에 BEE를 알게 되었고 간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건강 문제로 너무 너무 고민하다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몇 개월의 쉼을 가진 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BEE 가족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BEE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부분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FTS 훈련을 마쳤고 2학기 때 FA 훈련이 시작되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BEE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힐링캠프”입니다.

남편 조원철 형제와 동대문중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공동체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20.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 웃을 때마다 사라지는 두 눈이 더 사랑스러운 우리의 동역자를 축복합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1. 9월 말씀을 행하라! '양선: 자비로부터 나오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 주려는 세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가족에게, 신앙공동체와 세상에게 다가가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2.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BEE WORLD! BEE WORLD CONFERENCE : 10월 2일~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간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3. 하늘은 청명함으로 풍성하고, 가을밤은 고요함으로 깊어 가고....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한 추석 명절 되세요!

